東大新聞

發行人 金東都
編輯人 南宋泰
主幹 宋泰燮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㉙3131~5
本社直通 ㉒8498

每週月曜日發行

學風刷新에 共同노력

10月中 새校風운동 展開 決議

總學生會 연석회의서

총학생회는 오는 10월을 「교풍정화운동의달」로 설정하고 학풍쇄신에 앞장서기로했다。지난13일 인수인계식을 기점으로 새학생회로서의 활동을 펴들려온 安紀鏶총회장단은 지난22일 오후2시 총학생회의실에서 각부·각장단의 연석회의를 열고 「교풍확립및 학풍쇄신에 앞장서는 총학생회가되자」고 다짐했다。이날 安회장 출범이래 처음열리는 솔잔부 연석회의는 「소신껏 일두를 수행할것」도 다짐했는데 安회장은 「솔잔부는 솔밭마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 명실상부한 학생회가 되도록 공동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솔잔부 연석회의는 우선 첫단계로 봉사부(부장=허태만)가 주동이되어 ①도서관이용 적극장려 ②교내미화운동 ③휴강지양및 강의시간엄수 ④교정내 차량 통행제한 ⑤뺑지달기및 복장간소화등에 중점을두고 오는 10월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지난 달까지는 인수인계식과 오리엔테이션 관계및 활동계획수립등으로 활동이 마비되었으나 27일부터 1일까지는 공보부가 앞장서서 각종 활동계획이 실린 총학생회 공보지 배부로 교풍운동 전개의 주지에 나서기로 했다。특히 이번 교풍운동 전개는 예년의 「교풍운동」의 성격을 띄우면서도 각학마다 세부안을 세워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펴게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교풍확립을 위해서 ①도서관이용 적극장려 ②휴강지양 및 강의시간엄수 ③뺑지달기및 복장간소화 ④교정내 차량통제 ⑤도서관 분위기 조성등을 내거는 한편, 교정미화를 위해 ①각 강의실및 써클·연구실 대청소실시 ②화장실 낙서지우기 ③캠퍼스내 분결장소 소독 ④꾸두닭이 운동을 전개 하기로 했다。

광부와체육·예술분야등 모든 면에서의 「연구와 창조」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우선도서관의 적극이용부터 권장하기로 하고 학풍쇄신에 공동노력을 펴게된다。

또 휴강지양및 강의시간엄수문제는 우선교수와 학생들에게 무단휴강근절을 호소하여 「학풍이 조성되는 진지한 강의실」이 되게하고 학생들의 불성한 강의태도는 자발적으로 각성하도록 촉구하여 그 이자로 직급, 이번 10월에 발표된 동국장학금 수혜자 명단。

학풍진작을 위해 이번에 전 학생들의 독서의욕고취와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문학, 역사등으로 구분 전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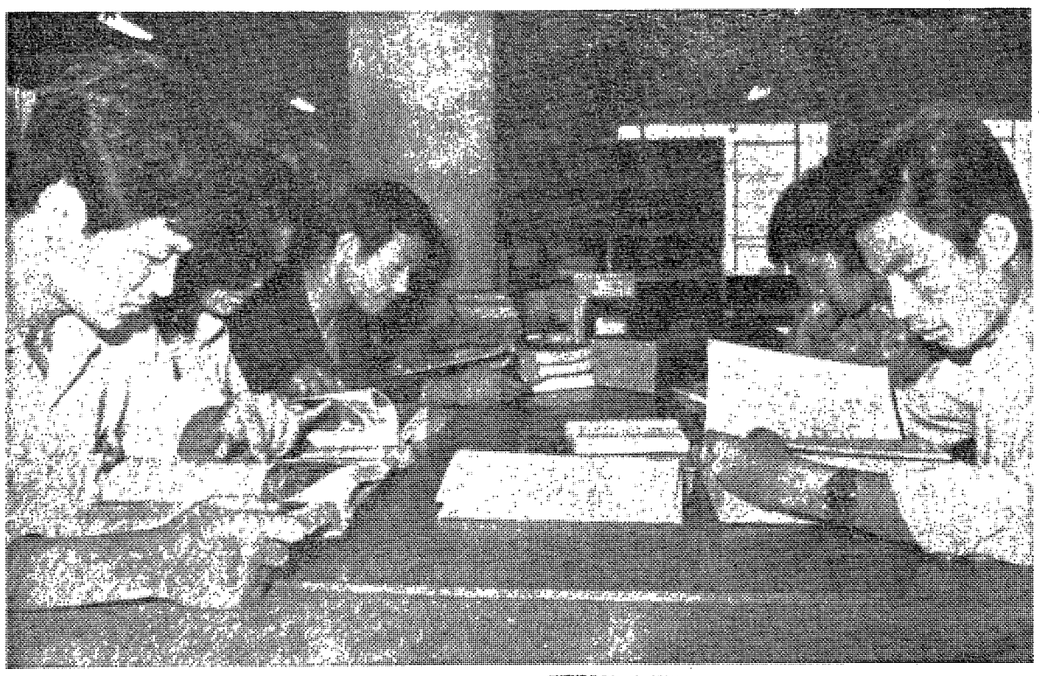
또 도서관에서는 교내에 독서캠페인을 벌여 「학생회관 상량식이 지난 22일 오전 11시 金東益총장과 李青謙출무원장, 吳法眼상무이사및 각학처장, 교직원, 학생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6층 천장옥상에서 베풀어졌다。

지난 5월8일 개교기념일에 착공한 이학생회관은 오는 12월말까지 완공목표로 공사가 활발히 진행중인데, 마지막 6층 상량식을 가짐으로써 골격공사만 거의 끝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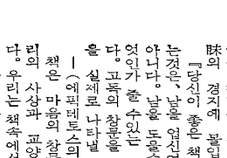
이공사가 완공되면 지하1층, 지상6층의 매머드 지하 학생회의실, 학생과, 신문사등이 들어서게된다。

學生會館 상량식

工事활발 12월말 完工



書架에서 풍요한 「나」를



大學街 한마디

글 梁在春 사진 李滿기자

「책속에 길이있다」…학문적인 길과 인생의 길이 많이 있다。책장을 넘기는 손은 그대로 『學而時習之 不亦說乎』이고, 책을 향한 眼光은 紙背를 徹할수있는 無我의 경지, 三昧의 경지에 몰입한다。

『당신이 좋은 책을 읽고 지식을얻는것은, 남을 도울수있고, 남에게 무엇인가 줄수있는 힘을 위한 것이다。고독의 창문을 열기나와 배운것을 실제로 나타낼 것이 필요하다』

—(에피테토스의 말씀에서)—

책은 마음의 창문을 열고있다。우리의 사상과 교양을 풍부하게 한다。우리는 책속에서 풍요한 인생을 배울 것이다。

○…「책읽는생활속에 우리의길이 있다」

지난24일부터는 제17회 독서주간 책을 넘기는 손은 마치 가두라미소리 벗삼아 즐기는 한장 한장 마다의 나의 책갈피는 火의 親을 그대로 실감나게한다。

대회때와 마찬가지로 본교 대운동장에서 개최된다。

한교내 동국학원 산하 9개 각급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약 2만여명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同 기획부에서는 지난22일 體典계부계 회석를 작성, 발표했다。

이날표에 따르면 부속고교 아대를 필두로 운석국 교, 평성여중교, 금산중, 대방중등상고, 본고 순으로 동등상고, 본고 순으로 오전9시 입장과함께 힘과 技의 경전이 펼쳐진다。또각종 경기 도중에는 본교연합생회의 제전이 펼쳐진다。

특히 이번 제전에서 마련한 「강강수월래」「마스」게임이 선을 보이며 부속학교의 기계체조, 루응假裝假面연기등 각종「마스게임」이 이날 체전을 수놓게된다。

경기내용은 본교연합생회 주최, 동국대학교 주관으로 육대회(대회장=蔡碧碩 이사장)가 오는10월16일(土) 대운동장에서 개최된다。

제2회 東國學院 綜合體典확정

來10月16日 大運動場서

제2회 동국학원 종합체육대회(대회장=蔡碧碩 이사장)가 오는10월16일(土) 대운동장에서 개최된다。

한교내법인 동국학원 산하 각급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약 2만여명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同 기획부에서는 지난22일 體典계부계 회석를 작성, 발표했다。

이날표에 따르면 부속고교 아대를 필두로 운석국 교, 평성여중교, 금산중, 대방중등상고, 본고 순으로 오전9시 입장과함께 힘과 技의 경전이 펼쳐진다。또각종 경기 도중에는 본교연합생회의 제전이 펼쳐진다。

특히 이번 제전에서 마련한 「강강수월래」「마스」게임이 선을 보이며 부속학교의 기계체조, 루응假裝假面연기등 각종「마스게임」이 이날 체전을 수놓게된다。

경기내용은 본교연합생회 주최, 동국대학교 주관으로 육대회(대회장=蔡碧碩 이사장)가 오는10월16일(土) 대운동장에서 개최된다。

한교내법인 동국학원 산하 각급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약 2만여명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同 기획부에서는 지난22일 體典계부계 회석를 작성, 발표했다。

이날표에 따르면 부속고교 아대를 필두로 운석국 교, 평성여중교, 금산중, 대방중등상고, 본고 순으로 오전9시 입장과함께 힘과 技의 경

讀者와 書評

金仁鴻 <敎授·法政大·圖書館長>

書評은 評者의內面을 吐露

讀者의 眼目흐리는일 許多

책을 다읽고 난 다음에 그 책에대한 感銘感激을 그 책의 問題에 다 꼭 걸 그 책의 問題에 다 꼭 쓰는 사람이있다。이러한 讀書態度는 아주 흥미롭다。독자들이 「독후감」을 쓰는습관을 기르게 되면 文章家로서의素志를 닦는 길이 될뿐 아니라 남들보다 더 그著作내용을 파악할수 있고 장차 일류 書評家가 될수 있다。

이러한 독후감이 곧 나의 서평인 것이다。

독자들이 자기나름의 유형무형의 서평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는 독자의사상의 표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흔히들 「書評」하면 斯界의 권위자나학자들만이 쓰는 글로 착각을하고 있고 심지어 어떤 著作에 대해 서평을 한다는 그자체가 저자에게 실례되는 일이며 의람된 짓으로 알고있는 것같다。이처럼 躊躇하는 경향은 아주갈 못된 생각이다。

서평은 著作物이란 무대에있어서의 독자의 內面의 독백이므로 저작물 다시 말하면 이런 독백이있으므로서 저작이란 무대도 그 생기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의 저작물을 평가한는이상거기에는 평가하는 사람의주관이라는가 지식의 수준, 학문적 배경, 취미, 경험情感등의 차이에 따라서동일한 책에대한 서평내용이 달라질 수있다。그리고 독자들이 어느정도까지 정신적으로 그저작의 내용과 함께 서평을 읽는 경향으로 독서를 하는 이에 대한 최선의 서평은 어떤 것이었다。

제도도보다는 안되는 수 있다는 운영이란문이 있다고 하다。 格의 더럽타에 빠져있는 끝이되고 결국 갔구도 없다면 운영에 잘못되고 그러나 체육행정체계에 깊은 관심을 가진 人士들의 이에대한 分析을 綜合해보면 내부에서의 불평불만 체육행정의 섭외치로 인한 불필요한 대립과 분쟁 등 세계적인 체육부활 운동의 이에 대한 위원회 내부에 둘째, 견해차로 인한 대립。 첫째 체육지도자와 코우치간의 의견 불쾌, 위원회구성 섭외치로 인한 불필요한 경비의 낭비。

대립과 분쟁은 체육지도자와 코우치간의 의견 불쾌, 위원회구성 섭외치로 인한 불필요한 경비의 낭비。

세계적 체육지도자와 코우치간의 의견 불쾌, 위원회구성 섭외치로 인한 불필요한 경비의 낭비。

대립과 분쟁은 체육지도자와 코우치간의 의견 불쾌, 위원회구성 섭외치로 인한 불필요한 경비의 낭비。

이라고 한다면 운영의 妙안을 찾아 제도개혁과 해결책 성립의 大手術을 통하여 刷新版을 마련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된다。

今般의 사태가 아니드라도 체육부운영과, 체육지도 또 체육행정에 대한 緊積된 問題에 관련되는 것이다。

「敎育不在」란 표현으로 또 어떤 교수는 「한 분개했던 것이다。심지어 어떤 교수는 「敎育不在」란 표현으로 또 어떤 교수는 「敎育不在」란 표현으로 또 어떤 교수는 「敎育不在」란 표현으로 또

55年10月13日第3種郵便物認可

良書적고 책값비싼 한국의 실정

「책을 읽는 국민이 되자」는 것은 비단 독서주간에 등장하는 표어일 수만은 없다. 낮은 문맹율에 비해 독서율이 너무 저조하다는 우리나라 실정으로서는 이러한 표어의 요구도 불가피한 것이지만 학문의 전당이라는 대학의 지성인들이 들기엔 부담이 느껴지는 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대학인들은 이에 신경을쓰지 않아도 좋을만큼의 독서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일까. 지난 21일 교내 1백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한 本社 앙케이트 조사에서는 良書가 적고 책값이 비싸다는 대답이 대부분이어서 독서不況은 당국의 빈곤한 文化 정책에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고보아야 할것같다.

吳碩奎 〈理大 英文學科敎授〉

□독서의 경향

하루중 대학생들이 책을 읽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1백명의 응답자중 2시간 내지 3시간을 책 읽는데 보낸다는 사람이 56%로 제일 많았다. 하루 5시간 이상 책을 읽는다는 사람도 23%나되어 「책읽지 않는 대학생」이라는 汚名을 다소 씻고있는 셈인데 재미있는것은 이들의 대부분은 상급학년인 3, 4학년생이었다. 그러나 학교강의나 전공서외에 거의 책을읽고있지 않는 학생도 상당수가 있어 전국민의 독서의 생활화는 아직도 요원하다고 보겠다.

하루 1시간을 독서로 보낸다는 학생(21%)을 포함해서 이들 독서의 대부분은 文學작품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공별 또는 기호에따라 독서경향이 다르긴하지만 文學物다음으로는 의외로 哲學계통의 독서가 많아 새학인답게 사색하는 모습도 짐작할수 있다.

그런가하면 月刊잡지나 무협소설을 읽는것으로써 독서의 체면을 유지하는 학생도 있어 독서의 양식과 자각이 촉구되고있다.

□비싼 책값

조사자 가운데 70%는 1권내지 2권의 책을 구입하고있다. 한달평균 대부분 전공학문과 관계있는 것만 사고있으며 月刊잡지 구독자들이 많아 아예「장서용으로나 사두고싶다」는 4% 응답자가 있고 보면, 읽히지도 않는책을 크고 비싸게만 내는 所以가 더딘있는지 알수가없다. 高所得층의 장서用이 아니고 良書를 멀리 하는게 독서이라면 고려가 있어야 겠고, 그에 대응해서 當局의 文化정책도 적정하게 취해져야겠다. 비단 全集類 서적의 출판만이 문제는 아니다. 값이 싼 노점서점을 즐겨찾는다는 여면 응답자는 검찰, 해적판에 불만을 표시, 아무리 해적판이지만 내용이 채이라고 부르기엔 안타까운 때가 많다고.

또 외국서적의 번역을 일원도에 구역을 느끼고 국내 신진학자들의 학술서내지 창작서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또한 당국의 보장과 지원없이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볼때 독서는 국민의 自發도 중요하지만 당국의 文化정책이 한정을앞서 국민의 독서욕을 불러일으킬수 있도록 해해져야겠다.

◇도서관 利用

良書가 없고 책값이 비싸다는 현실위에서 도서관은 편리한 기관임은 누구나 잘 알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용학생이 그리 많은것같지는 않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생활에서 도서관을 찾지 않는다는 10%, 「무관심해서」 8%, 「읽어보려는 책이 없기 때문에」 13%의 응답자 「대출절차가 번거로워」 22%가 도서관 장서를 이용하지 않고있다.

이것이 시간이 없다는 것과 무관심서적을 포함한다면 40%가 도서관에 불만(?)을 갖고 있는 셈이다.

개인의 독서열 不振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도서관업무의 퇴학생 서비스에도 책고의 여지는 있을듯 하다.

비교적 관외대출이 시작되면서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는 있지만 대부분 대출학생들은 「대출기간이 좁다 길었으면 좋겠다」고. 도서관 장서를 이용하지도 않고 독서에 열도 없는 사람을 독서중요하지만 더 많은 책을 갖추어 요구하는 학생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하는것도 중요한 일이다.

〈論〉

하루평균 3시간읽어

빈곤한 文化정책…독서 不況부채질

정선된 文庫本많아야

良書가 적고 책값이 비싸다는 대답이 대부분

우리민족의 문화는 역사적으로 외래문화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났다고해도 과언은 아닐것이다. 우리문화에서 중국의 것을 빼내면 고유한 우리의 것이라곤 극히 적어질것이다. 수천년동안 우리의 교육이 중국의 문자와 사상에 의하여 육성되었고 우리의 골문서 통신문학사상, 질흔사, 심지어는 지명, 인명까지도 한문으로 되어있는 사실만으로도 과히 외래문화영향력의 정도를 짐작할수있다. 일상 용하는말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그것을 기록, 또는 공용어로 사용한 나라가 이세계에 몇개나 있을까. 또 그런 상황에있는 나라 혹은 민족이 전적으로 그의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는 동안에 20세기에 들어서서는 일본의 지배를 받게됨으로 우리의 문화발전은 수십년간 저해되어 왔고, 근자에 이르러서는 미국 기타 서구의 문화문명이 우리의문화전통을 압도하다시피하고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우리의 학술성은 역사적으로 부리잡은 것이 되었고, 따라서 후진성은 역시 짙은 이중 삼중으로 무거워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지금 처음을 살리면서 구미의 문화문명이 우리의문화전통을 흡수하는 어려움에 놓여있고, 나아가서는 그것을 극복하고 능가해야한다는 민족적이상을 추구하려는 가시발점에 서있다.

이러한 현실과 이상을 가장 잘 알고 그것을 밑고나갈 최선도자는 한도들이고 학도들이 학술을 독파해야하는 근본이유도 이러한 우리사회의 역사적 현실적 여건 때문이다. 여기서 원서라하면 서구 선진국에서 내는 책을 뜻함은 일반 통념이다. 책은 각분야의 지식과 사상 또는 기술을 습득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편리한 방법이다. 책은 그 나라의 문화를 영위하는 학술을 위해서 科學圖書를 수천하는 책은 DNA의 「二重나선」이라 하였다.

그러나 「二重나선」이라는 책은 DNA의 二重나선의 모형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설명한 어려운책인 이해하기 어려운책은 아니다. 미국 태생의 「유전자란 무엇인가」라는 강의를들고, 이것이야말로 생명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라는 신념밑에 쓰여진것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수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해서부터 미국은 물론 덴마크, 영국등의 학계를 두루다녀 몽동 연구학자들을 얻고, 또 쟁한 유명학자들과 연구의 경쟁에 이겨 나아가야 하는 점은 「왓슨」의 인간적내막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저자 자신도 「일반적으로 과학은 어렵게해서 얻어지기보다 대해서는 주의하지 않는 경향이있다」 특히 문외한은 과학이란 이론상의 문제뿐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실제로는 과학의 진보란는 대단히 인간적인것과 전통에크

科學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科學圖書를 수천하는 책은 DNA의 「二重나선」이라 하였다.

그러나 「二重나선」이라는 책은 DNA의 二重나선의 모형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설명한 어려운책은 아니다. 미국 태생의 「유전자란 무엇인가」라는 강의를들고, 이것이야말로 생명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라는 신념밑에 쓰여진것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수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해서부터 미국은 물론 덴마크, 영국등의 학계를 두루다녀 몽동 연구학자들을 얻고, 또 쟁한 유명학자들과 연구의 경쟁에 이겨 나아가야 하는 점은 「왓슨」의 인간적내막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저자 자신도 「일반적으로 과학은 어렵게해서 얻어지기보다 대해서는 주의하지 않는 경향이있다」 특히 문외한은 과학이란 이론상의 문제뿐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실제로는 과학의 진보란는 대단히 인간적인것과 전통에크

나의愛藏書

題字는 筆者

張庚鶴 〈法政大 교수〉

거지가 부자집 식당에 초대받았을때의 만족감은것을 美國에가서 대학도서관에 들어갔을때 느꼈다. 그야말로 寶物선장이다. 보고싶고 갖고싶던 책이 거의다 갖추어져있었고 언제나 읽을수있는 상태에 있었다. 法社會學에 관한 文獻이 「웰윈힘」에서 「웨버」를거쳐서 「구르비치」에 이르기까지 완벽히 수집되어 있었다. 거기다가 도서관의 설비가 부자집 식당에 초대받았을때의 만족감과 함께 즐길수있는 좋은 전축같은것을 사가지고 왔다. 약간 사가지고온 책도 一五년이 넘는지금까지 한권도 읽어본적이 없는 책이나 읽어보고싶은 책도 있었다. 일제시대의 문교부에 들어간다. 그때 나는 한국한때도 책을사지않고 그돈으로 가족과함께 즐길수있는 좋은 전축같은것을 사가지고 왔다. 약간 사가지고온 책도 一五년이 넘는지금까지 한권도 읽어본적이 없는 책이나 읽을수있는 상태에 있었다. 法社會學에 관한 文獻이 「웰윈힘」에서 「웨버」를거쳐서 「구르비치」에 이르기까지 완벽히 수집되어 있었다. 거기다가 도서관의 설비가 부자집 식당에 초대받았을때의 만족감과

칸트의 道德論

정병국

칸트의 철학은 理性에 관한 철학이다. 이 理性을 칸트는 두 가지로 보았다. 그 하나는 理論理性에 관한 것이고, 다른하나는 실천이성에 관한 것이다. 저자는 이성론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도덕론에 관한것 이다. 그런데 칸트에 의하면 道德論은 경험적인 부분과 합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도덕론은 자연에 의해서 촉발되어지는 한편 칸트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에 대하여 법칙을 규명할수 있게된다. 그렇다면 칸트에 있어서 도덕론은 어떻게 규명되어질 것인가?

칸트는 이 법칙을 理性의 사실이라 하였다. 그리하여 칸트의 도덕율은 법칙으로서 그 자체 절대적인 필연성과 타당성을 지니고 있으며 전적으로 인식의 순수한 부분에 기초하고 있어야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경험적인 것이 아니라 칸트에 있어서 선천적 법칙이다. 이와같이 도덕율은 이성의 사실인 것이다. 이리하여 도덕율은 마땅히 있어야한다. 왜냐하면 「칸트」는 人우리들의이성에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는 실천적 근본법칙을 율바르게 평가하는 지침과 최고의 규범이 없다면 도덕자체가 타락하기 때문에〉뿐만 아니라 道德哲學이 성립할려면 순수하고 존엄한 도덕율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칸트」에 의하면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은 自由의 주체로서 悟性界에 속하고 있는 동시에 경험적인 感性界에 속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감성계의 일부로서 인간은 항상 욕망과 感官的인 충동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도덕율은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하는 定言的命法의 성격이라야 할 것이다. 「칸트」도 말한 것처럼〈정언적 명법은 자유의 이념이 나로 하여금 예지계의 성원으로 하게끔 하는 계에서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내가 예지계에서만 속한다면 나의 행위는 모두 이성의 자율에 언제나 따르게끔 되어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동시에 감성계의 성원으로서 직시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따르고있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칸트에 있어서의 定言的인 성격이 도덕적인 당위가 되는 소이가 된다. 이리하여 도덕율은 언제나 우리에게 정언적 명법으로 주어진다.

그러므로 도덕율은 실행해도 부방하고 실행하지 않아도 부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적으로 마땅히 따라야하는 것이다. 또한 도덕율은 실천적법칙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편 타당한 법칙이 지 일시적 혹은 편의적 격률이 아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언적 명법으로서 우리들 인간은 이중적인 존재이므로 실천적준수이성의 이념을 감촉하는 능력에따라 그 이념을 실제로 활용하려면 그러위한 정언적 명법이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칸트는 말하기를 즉〈감성계에 속하고있는 우리들은 오성계의 법칙에 복종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야된다. 그리하여 오성계의 법칙은 나에게 대한 명법이고 우리들에 따라 행위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規範없으면 道德타락

生命保存은 순수의무여야

칸트에 있어서의 순수한 의지의 개념을 애착실이나 혹은 도덕적인 內實에서 구하지 않고 순수한 의지의 원리에서구해갔다. 이리하여 칸트는 다음과 같은 실례로서 의무로부터 행위를 설명하고 있다. 즉〈인간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의무라고 하는것이 의무가 되는 것이 직접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의무이다〉 이것이 직접한 도덕적 가치를 갖지못한 행위이므로 도덕률의 존경에서 오는 행위의 필연성이 못된다고 하였다. 칸트는 타인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은 친절하게 하는 것은 모든 결과과 어떤 목적에 의한 친절의 동기를 떠나서 오한 하나의 슬플에서 였다면 의무로부터 친절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적합한 행위는 한다면 비로서 착된 행위로서 누구나 마땅히 따라야될 도덕율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인간은 온화한 기질을 지닌 가치 보다도 더 높은 가치 선의지를 자기속에서 발견하고 있기때문에 순수한 의무로부터 친절을 베푸는 성격의 가치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자기자신의 행복을 확보한것이 의무다〉이 명제 역시 자기의 욕구가 이 바로 도덕률을 지키는 행위의 필연성이라하였다. 〈친절하게 하는것이 의무다〉이 명제 역시 남에게 친절하게 하는것이 어떤 목적에서 혹은 자기의 슬플에서도 불구하고 애착실에서였다면 의무에 적합한 행위는 지만 친절 도덕적 가치를 갖지못한 행위이므로 도덕률의 존경에서 오는 행위의 필연성이 못된다고 하였다. 칸트는 타인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은 친절하게 하는 것이 의무로부터 그러므로 칸트는 친절하게 하는 것은 친절하게 하는 것이 의무로부터 친절을 베푸는 성격의 가치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자기자신의 행복을 확보한것이 의무다〉이 명제 역시 자기의 욕구

칸트의 철학은 理性에 관한 철학이다. 이 理性을 칸트는 두 가지로 보았다. 그 하나는 理論理性에 관한 것이고, 다른하나는 실천이성에 관한 것이다. 저자는 이성론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도덕론에 관한것 이다. 그런데 칸트에 의하면 道德論은 경험적인 부분과 합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도덕론은 자연에 의해서 촉발되어지는 한편 칸트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에 대하여 법칙을 규명할수 있게된다. 그렇다면 칸트에 있어서 도덕론은 어떻게 규명되어질 것인가?

칸트는 이 법칙을 理性의 사실이라 하였다. 그리하여 칸트의 도덕율은 법칙으로서 그 자체 절대적인 필연성과 타당성을 지니고 있으며 전적으로 인식의 순수한 부분에 기초하고 있어야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경험적인 것이 아니라 칸트에 있어서 선천적 법칙이다. 이와같이 도덕율은 이성의 사실인 것이다. 이리하여 도덕율은 마땅히 있어야한다. 왜냐하면 「칸트」는 人우리들의이성에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는 실천적 근본법칙을 율바르게 평가하는 지침과 최고의 규범이 없다면 도덕자체가 타락하기 때문에〉뿐만 아니라 道德哲學이 성립할려면 순수하고 존엄한 도덕율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칸트」에 의하면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은 自由의 주체로서 悟性界에 속하고 있는 동시에 경험적인 感性界에 속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감성계의 일부로서 인간은 항상 욕망과 感官的인 충동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도덕율은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하는 定言的命法의 성격이라야 할 것이다. 「칸트」도 말한 것처럼〈정언적 명법은 자유의 이념이 나로 하여금 예지계의 성원으로 하게끔 하는 계에서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내가 예지계에서만 속한다면 나의 행위는 모두 이성의 자율에 언제나 따르게끔 되어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동시에 감성계의 성원으로서 직시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따르고있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칸트에 있어서의 定言的인 성격이 도덕적인 당위가 되는 소이가 된다. 이리하여 도덕율은 언제나 우리에게 정언적 명법으로 주어진다.

그러므로 도덕율은 실행해도 부방하고 실행하지 않아도 부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적으로 마땅히 따라야하는 것이다. 또한 도덕율은 실천적법칙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편 타당한 법칙이지 일시적 혹은 편의적 격률이 아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언적 명법으로서 우리들 인간은 이중적인 존재이므로 실천적준수이성의 이념을 감촉하는 능력에따라 그 이념을 실제로 활용하려면 그러위한 정언적 명법이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칸트는 말하기를 즉〈감성계에 속하고있는 우리들은 오성계의 법칙에 복종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야된다. 그리하여 오성계의 법칙은 나에게 대한 명법이고 우리들에 따라 행위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내 말씀은

박정희

半死의 몸짓으로
窩邊의 산책길에 나서는
내 말씀은
두시의 열차로 발송한
막내의 사망통지서에 꽂혀
잘종을 심하게 하다가
浦口로부터
친구의 호흡이 鮮深히 들린 뒤
감격의 思念으로 거두운 遺言들이
하늘을 가리운 채로
두어치씩 성장하고,

소적새의 血音으로 들아오는
愼死한 내 말씀을
합배의 해소로 적어내어
墓碑를 다듬고
幼年의 기억으로도 생소한 낚시터엔
合唱으로 차오른 讚歌들이
건져지곤 하더니.

피로움이 없는 님에는.]

<文理大 國文學科>

女性과 社會진출

申宗勳

예로부터 여성들은 자신들이 인간 존재라고 生人이나 그네들의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왔다. 문제되고 있는 「여성해방」의 고통과 본질은 과거에는 여성들은 단지 현모양처가 되는데에만 존재했던 여성의 본질을 받는 대신에 자기네들이 남자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했고 또 남자를 부러워했다는 점에 기인된다. 그녀들은 거장하고, 아름답고, 또 교육을 받았는데, 그네들의 자식과 가정에만 매달려있었다. 그네들은 참된 여성으로서 할 일을 다했던 것일까? 오늘날의 여성은 전통과 교육과 그네들의 앞날은 취직으로 지국지국한 가정의일(직업, 해산의 고통) 로부터 해방되고 있다. 오늘의 여성에겐 미래의 창조를 꿈꾸는 일밖에는 아무런 좋은 方法이 없다.

아기의 어머니, 남편의 아내로서의 그네 자신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方法이 없다. 그러므로, 더욱더 많은 여성들이 불만을 품고있는 것 같다. 부부간의 사랑과 어린애들도 좋지만 그것이 전부가 될수있을 까? 오늘날 여성들은 자기네가 남자들에 의해 左之右之되는 연약하고 슬모없는 장식품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자들은 여성에게, 그네들의처소는 가정이라고 훈히를 말한다. 남자들은 어머니로서,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리고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는, 아이에게 기저귀를 채워주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짓는 일같은 여덟 대개의 집안일들은 여덟 살난 아이들도 다룰수있는 것들이다.

남자들이 만들어냈고 또 남자들이 만족해했던 것이다. 교육에 있어서 남자교사들은 자라나는 소년들에게 이러한 감각관념을 부여했던것이다. 교육온인간에게 넓은 시야와 경험을 열어주고 思考에있어 아주야 한다. 그러나 여성에게는 이러한 교육적 성장에 커다란 장해가있다. 그 장해란 사회의 諧양상에 의해 확립된 여성의 지위에 관한 여성 자신들의 확고한 선입관이다. 현대 여성들은 가정주부의 공허함에 좌절감을 느낀다. 대부분의 중요한 일과 사회적인 일은 가정의 외부에서 결정되어진다. 따라서 여성들은 자기자신의 일을 위한 최선의 方法이다.

푸름벤치

<투고환영 4枚限>

깊어가는 가을밤에 처량하게 울어대는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서 구름사이로 흘러 새어라는 달빛을 보고 있노 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명상에 잠기곤 한다.

더우기 고요한 주위에 심술궂은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 창문을 두들길 때면 나는 슬퍼진다.

그렇게 금도끼가 계수나무 아래서 떡방아를 찧던 그런 달은 아니련만 그래도 가을밤엔 그저 찌신비스럽지 않겠는가?

슬픔을 자극한 가을의 달은 지난간 아름답던 추억을 일깨우는 것이다. 그 하나하나 내머리 속에 떠오르게 한다.

어린시절 소꿉친구와 잠들기 전에 이야기하던 추억이 아련히 떠오른다. 달빛에 흔들리는 모나 리의 잔잔한 미소를 짓는 듯한 그 얼굴. 달빛에 비쳐 귀뚜라미가 울어대는 가을밤이 아니었겠는가? 울려 나오는 소랫귀 부여잡고 그 얼굴을 생각하였으리라. 인산한 마음을 뿌리치고 이처럼 고요하고 달빛을 보고있으면서 금강산 어느모퉁이에서 그 의태자 역시 이러한 가을밤의 낭만주의 섬세성수를 나타났다. 서쪽에 걸린 초여름 달로 새로 얼굴을 가죽이 내밀었다. 한량이 달빛을 받자, 시퍼렇게 멀든 자죽이며 눈두덩에는 피가 맺혀 있었다.

동녘이 훤히 밝아왔다. 한량은 상형 곡인시에 이지어서 한량이 다소 몸맵부생를 고친 다음 침정 집으로 돌어섰다.

개가 내달아 요란스럽게 짖어댄다. 한량이 집에 닫고보니, 그 동안 집안은 환연히 변해 있었다. 어머니는 한량이 시집간 그 해 가을에 왜병으로 세상을 버렸다. 박자장은 타락되어 술 타령으로 밤을 밝히니 집안꼴은 말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박거랏아 주리라는 기대는 웬 낯선 여인의 싸늘한 눈초리로 변했다.

한량은 낯도 설고 잔디도 설고 삼아붙지 않은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다.

발등이 지어서 곤드레만드레가 되어서 돌아온 자장은 딸을 보고 마구 욕을 했다. 자장은 분의 아니게도 딸에게 화풀이를 했던것이다. 약주를 하셨읍니까? 아랫목으로 앉으셔요. 『뭐, 이게 누구냐? 한량이 아냐. 가여 시집간 년이 왜 왔어. 당장에 꺼질려 고표현하기도 한다.

▼그것을 충계받아들일수도 있겠지만, 「점잖한다」는觀念에 얽매인 행동의 연계때문에 우리사회는 非理가 쉽게 죽인되어 왔고 民主시논의 이 높고 밑음직하다는 사전적인 풀이 이외에 그말속에는 「점잖지가 않다」, 즉 「나이가 찼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그래서 모든일에 君子然하고 가능한 개입하기를 꺼리며 부정한 사세를 지키는 따위를 우리는 곧잘 점잖하다」

▼「점잖은 行爲」는 그의 맑속에는 넓을수없는 금지가 서려있다. 「속이 꽉 필요할때라면 주저 말고 그것을 바쳐야할 것이라는 大家다운 기백과 용기는 지금 시대에 가장 적합한 말인지도 모른다.

「나에게만 중요한 것이라면 나에게 무슨상관이 있느냐」고 물을 수있는 휴머니즘적 사고사세 또한 이시대에 필요한 것이다.

▼양드레·말로가 作家이거나政治人 또는비평평론가나 古文學者라는점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는것은 아니다.

지식에 차있는 그의 大叙事詩的 편력과 創造的인 리리시즘이 모두 조화를 이루는 지성이란 점에서이다.

세계를 혼자서 受任하듯한 男性은명을지니고사는 늙지않는 知性때문에 그는 늙이 평가되고있는 것이다.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행위를 가르침이 아닐까 하다」는말은 바로 이런 행위를 가르침이 아닐까 다는 것이다.

▼「품격」이란 인간의 의욕을추구하면서 行動과 文學의 일체化를 실천해온 그 대표적인 老作家는 그의 박격적 행동선언을 한셈이다.

▼뱅뉴人民을위해 뱅글라데시의 해방운동에 진입해라라는 해방운동에 말로—. 「예술인의 良心은 현실의 苦痛을 외면하지 못한다」는 그의 말속에는 넓을수없는 금지가 서려있다. 「속이 꽉 필요할때라면 주저 말고 그것을 바쳐야할 것이라는 大家다운 기백과 용기는 지금 시대에 가장 적합한 말인지도 모른다.

「나에게만 중요한 것이라면 나에게 무슨상관이 있느냐」고 물을 수있는 휴머니즘적 사고사세 또한 이시대에 필요한 것이다.

▼양드레·말로가 作家이거나政治人 또는비평평론가나 古文學者라는점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는것은 아니다.

지식에 차있는 그의 大叙事詩的 편력과 創造的인 리리시즘이 모두 조화를 이루는 지성이란 점에서이다.

세계를 혼자서 受任하듯한 男性은명을지니고사는 늙지않는 知性때문에 그는 늙이 평가되고있는 것이다.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행위를 가르침이 아닐까 하다」는말은 바로 이런 행위를 가르침이 아닐까 다는 것이다.

점잖은 行爲

단편소설

花圃

金章東

〈3〉

향랑은 지금껏 설움과 구박을 받으며 처음으로 말대꾸를 했다.

『아냐. 죽여주마. 이 쌍년 년아. 당장에 죽여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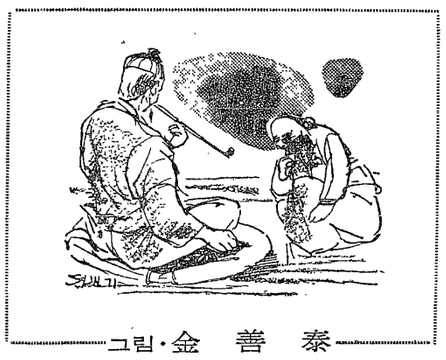
철부이는 냄어진 향랑의 목을 밟고 올라섰다. 향랑은 목을 발힌채 눈알이 뒤집혔다. 손이 허공을 저었다. 시부모가 달려서 왔다. 하나 연로하고 팔리려다 낙상했다. 하나 겨로라 결결했다.

지기는 주인집 아들을 어쩌지 못해 애가 탔다. 두 주먹만 불끈 쥐고 분을 못이겨 부르르 떨었다.

향랑이 시집에 온 후로 유달리 생색이 밝아진 것은 꿈꾸어적부터 머슴살이를 하는 지기였다. 지기는 그처럼 아름다운 여인도, 이렇게 가까이한 적도 없었다. 그는 푸대접과 한대만 받았다. 주인집 아씨가 오고서부터 때마다 손수 남라다주는 밥상을 받았다. 일에서 돌아와도 집이 모만모락 서린는 국을 먹었다. 따근따근한 숭늉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산보달을 느꼈다. 그는 이 착하고 마음씨 고운 주인집 아씨와 한 집에 있는것만도 무한한 행복을 안겨다 주었다. 날들래 넝쿨라도 한 그릇 청해 마실때의 그 흐뭇한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수 없었다. 지기는 주인집 아들이 이 착한 아씨를 때리고 구박하는 밤이면, 문지들에 숨어들어 가슴을 쥐인다. 안타깝기만 했다. 이런 지기는 끝내 보다 못해 칠흑의 틈 밀치고 아씨를 피하게 했다.

『서방님. 직가 죽을 죄를 졌지요. 철 때리린 말요.』

『이놈. 너 연놈이 짝구 달라붙어. 이 연놈을 당장에 물고를 내라라.』



—그림·金善泰

철부이는 얼르려 두 손을 모아 빌며 빌며 지기에게 붙었다. 그는 그 물에 한결 기세를 더해 장작개비로 치고받아 앙탈. 지기는 흑 신음을했다. 지기는 입이 닳나발이 되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 흘렀다. 전신이 작신 오긴왜 왔어, 어이.』

자장은 취기 발에 진정 반으로 마구 넋두리를 했다. 향랑은 목을 놓아 울었다. 이제는 마음 하나 어디 의지하고 살 재미라고는 없었다.

향랑이 친정은지 열흘이 못되어 계모의 악다구니를 들어야했다. 폭설도 철부의 매만큼이나 했다. 공운하던 달이 거처어지고 사워져서 입이라기보다는 변소통이라는 것이 더 나았다.

향랑은 오나 가나 그 구박을 받으며 친정살이도 석 달이 지났다. 그 석달이 천추같은 나날이었다. 시집에라도 갈까 했으나 천처정 일년이 못되어 양반 처녀에 그럴수 없었다. 그나마 친정에서 양봉이의 마음이 돌아섰는지도 모를일이었다.

자장은 재처에게 타이르다도 대고했다. 그러나 앙칼진 계모는 그 등을 쳐 발악을 향랑에게 맞대응고했다.

『이년, 시집간 년이 친정살이를 해. 서방질이나 하다 쫓겨왔여. 왜 시집엔 못돌아가고 친정에 빌붙어 있어, 있기를 끌난 눈썹에 빠하지. 시집으로 가든가 어데 안보이는 곳으로 가여, 가. 난 끝도 보기싫어. 어서 썩 꺼지란말여. 내참』

향랑은 말문에 두고 불수록 지난 날이 회상되었다. 한덕과의 그 모욕을 생생하게 뜯어나곤 했다.

자장은 하는 수 없이 1년이나 어물쩍 넘겨 시집에나 쫓으려 했다. 그래서 향랑을 동생 집으로 보냈다.

향랑은 보슬비 내리는 그 날, 그만 시집을 쫓겨나게 되었다. 어언 시집살이 일년이 흐른다. 향랑은 무서움이 발길이 들려졌다. 혀절을만 골라짚었다.

(밤새 친정곳이에 가, 닿으면 부모님께 친정에 온다고나 할까. 이 새벽에 네가 웬일로 오느냐고 하면, 남편은 타관으로 가버려 시부모는 늙어서 거동을 못하신다고 할까. 그러면 늙은 시부모두고 친정엔 뭐하러 왔냐 하시면, 어머님이 죽도록 보고 싶어서라고 할까. 얼굴에 그 상처 하시면……)

향랑이 눈물로 앞을 가렸다. 향랑은 그 모진 매를 맞고 혼자 밤길을 걸어 상쾌함을 향했다. 보슬비는 여전히 추절스리 내렸다. 비에 흠뻑 젖은 옷은 삼처 맞은 살에 달라붙어 으시시 추웠다. 살갗이 아렸다.

그 새 비는 그쳤다. 동녘 하늘이 밝게 갰었다. 그에 따라 별이 하나 둘 나타났다. 서쪽에 걸린 초여름 달로 새로 얼굴을 가죽이 내밀었다. 한량이 달빛을 받자, 시퍼렇게 멀든 자죽이며 눈두덩에는 피가 맺혀 있었다.

동녘이 훤히 밝아왔다. 향랑은 상형 곡인시에 이지어서 한량이 다소 몸맵부생를 고친 다음 침정 집으로 돌어섰다.

개가 내달아 요란스럽게 짖어댄다. 한량이 집에 닫고보니, 그 동안 집안은 환연히 변해 있었다. 어머니는 한량이 시집간 그 해 가을에 왜병으로 세상을 버렸다. 박자장은 타락되어 술 타령으로 밤을 밝히니 집안꼴은 말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박거랏아 주리라는 기대는 웬 낯선 여인의 싸늘한 눈초리로 변했다.

한량은 낯도 설고 잔디도 설고 삼아붙지 않은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다.

발등이 지어서 곤드레만드레가 되어서 돌아온 자장은 딸을 보고 마구 욕을 했다. 자장은 분의 아니게도 딸에게 화풀이를 했던것이다. 약주를 하셨읍니까? 아랫목으로 앉으셔요. 『뭐, 이게 누구냐? 한량이 아냐. 가여 시집간 년이 왜 왔어. 당장에 꺼질려 고표현하기도 한다. 복이라도 맥지 왜 오냐 말이다. 어서 가라. 가란 말여. 내 눈앞에 얼씬도 하지 말라구.』

『아버님. 호흑.』

『이것이 다 타고난 팔자라면 탁한다구해서 뭘 하겠느냐. 애미는 다 하루도 마음 편히 가시지 못하고 저보지못하고 끝내 지난 가을에 죽고말았어. 죽으면 서 한다는 소리가 널 못 잊어, 시집가 제발 하느라 쫓겨오지 아주 말고 잘살 라구 하고 죽는순간까지 지내거정 민했지. 그런 데, 넌 이게 뭐냐 말야.』

죽어도 시집에서 죽어 시집 귀신이 왜 왔지 오긴왜

투고환영

詩…1편이상
수필…10매내외
論文…15매내외
단편소설…60매내외

※수시로 접수함

제출처 · 본사 편집국 (C건물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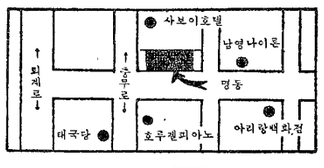
東大新聞社

한국 최초의 기성복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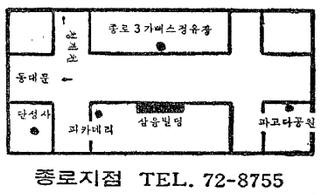
9月 20日~10月2日 까지 明洞本店 에서

12 KO 71

세계기성복 착용율
(I. W. S. 추계)
미국~95%
영국—85%
일본—50%
한국—10%?



크라운상사본점 TEL. 23-3766,7



종로지점 TEL. 72-8755

Toper's

토파즈®

토파즈의 자랑
① 토파즈는 London의 Domihoff社와 Tokyo의 DIXON社가 원형을 제공했읍니다.
② 토파즈는 정소년부터 노년까지 입을 수 있도록 여러가지 STYLE과 SIZE를 고루 갖추고 있읍니다.
③ 토파즈는 국내 5대 MAKER의 울마크 복지만을 사용합니다.

特報!
SI-RO-SET를 아십니까?
순모직은 탄력성이 強해서 종래의 Press로서는 주름이 잘 펴집니다. SI-RO-SET란!
C.S.I.R.O(호주羊毛硏究所)에서 발명한 새로운 加工法으로서 비를 맞아도 물에 젖어도 드라이크리닝을 해도 주름이 펴지지 않고 언제나 샤-프합니다.
LICENSE NO. SRO-OI-KO-71

SI-RO-SET

韓国最初로 認可獲得